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이야기



가득

시작역

강동현
동아대학교

-
-

인생에 20대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누군가는 꿈을 좇고, 누군가는 꿈을 이루고, 또 누군가는 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20대는 자신이 만든 멋진 기차를 타고 출발하는 시작역입니다. 대한민국의 20대 역시 그렇습니다. 20대 대선이라는 명목하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만들어 갈 우리나라의 시작역입니다.

20대 대선이 왜 대한민국에 중요한 시작역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혼란스러웠던 시국을 뒤로해 상처를 치유하고, 아픔을 발판 삼아 더욱 나아가야 할 시기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는 어언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우리의 일상은 얼어있었습니다. 벚꽃 피는 봄을 느끼지 못하고, 뜨거운 여름 바캉스, 한적한 가을 나들이, 눈송이 내리는 아련한 겨울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뿐만일까요? 지금의 대한민국, 또 다음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은 서로를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혐오하며, 서로를 갈라지었습니다. 성별, 개인의 정치적 이념은 서로를 혐오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름은 틀림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혼돈 속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투표입니다.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정치적 이념에 구애받지 않는, 또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투표입니다.

그러나 20대 대선, 이런 멋진 말에 잘 맞는 화합과 평화, 평등을 위한 대통령 선거였나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못했습니다. 소위 네거티브 논쟁이 주를 이룬 진흙탕 싸움이었죠. 남성과 여성 간에 갈등이 생기고, 개인의 정치적 이념은 혐오 대상이 되었으며, 서로를 다름이 아닌 틀림으로 보았습니다. 대통령이란 한 국가의 국정을 이끌 지도자, 국가원수, 그리고 청년들이 만들어갈 나라를 제시하고 또 갈고 닦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택하는 것이지, 내가 덜 싫어하는 사람, 우리 편, 상대방만 아닌 쪽을 택하는 선택의 장이 되어선 안 됩니다.

20대 대선 이후의 대한민국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앞으로의 청년들이 만들 기차가 전복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역시 노력해야 합니다. 혐오의 태풍에 휩쓸리지 않도록, 휩쓸려가는 우리들을 방관하지 않도록.



✦ 이달의 기도 지향 :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또다시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

유상우 광천아우구스티노 신부 | 우정성당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 대선은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21세기 출생자가 처음으로 대선에 참여했고, 만 18세가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선이었습니다. 그리고 0.73%라는 아주 적은 표 차이로 승부가 결정났습니다. 득표수로는 24만여 표 차이였지요. 제가 사는 울산의 한 구에서는 두 후보의 득표수가 95표밖에 되지 않은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공중과의 출구조사 역시 거의 정확히 적중했고 코로나-19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과 5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대선 뒤풀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또 하나의 선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교육감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 교육의원까지 선출하게 됩니다.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던 후보자는 총 4,016명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지요. 올해도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고 이 후보자들을 선출하기 위해 유권자들은 적게는 7장, 많게는 9장까지의 기표용지를 받아 들고 기표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

우에 제가 사는 곳이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입니다. 그러기에 저에게 이번 지방선거에 주어질 투표용지는 울산광역시장, 울산 중구청장, 울산광역시 의회의원(지역구), 울산 중구의회의원(지역구), 울산광역시의회의원(비례대표), 울산 중구의회의원(비례대표), 울산광역시 교육감 등 총 7장입니다. 제 주도에 사시는 분은 여기에 교육의원까지 포함될 것이고, 국회의원의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구에 사시는 분은 투표용지가 늘어나겠지요. 공천을 받기 위한 후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다시 언론은 선거를 향해 수많은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러한 투표에 피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인 듯합니다.

수많은 투표용지에 질려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무관심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선거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50여 년 전에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서는 교서 '80주년'을 통해 **“각 지역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각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책임(4항)”**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정신적 쇠신을 가져오는 풍성한 힘”**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러한 관심에 젊은

이들의 참여 또한 촉구하고 계십니다. 2014년 아시아 청년대회 미사로 방한하신 교황님께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회 생활에 온전히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 신앙의 지혜를 불어넣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음을 되새겨봅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구원이 개인적인 측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작용함을 분명히 일러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회적 차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개별 인간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기쁨, 144항)”

더불어 대선에 이어 바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들의 태도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정당들은 폭넓은 참여를 촉진하고 공공의 책임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게 할 임무가 있다. 정당들은 시민 사회의 열망을 간파하고, 그 열망들이 공동선을 지향하도록 하며, 국민들이 정치적 선택을 내리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을 제공하도록 요구받는다. (간추린 사회교리 413항)” 라는 교회의 가르침이 날카롭게 느껴지는 것은 아직 한국의 정당들이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정권을 가지려는 욕망에 머물지 않고, 개인의 명예나 욕심이 아닌 시민 사회가 요구하고 그것이 공동선을 향한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당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황님께서 방한 당시 청와대에서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선거가 일부의 비판대로 세금 낭비와 줄 세우기, 자리 나눠먹기가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과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 계층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각별히 배려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



땅과 경제정의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결국 부동산 문제다. 이해관계 때문에 진실에 기초하지 않는 연구도 많은데 결과가 여과 없이 보도되고 있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까에만 몰두하는 사회가 됐다.

정의 구현은 하느님 나라의 질서 세우기

정의란 하느님이 주신 천부인권을 누리는 ‘공평’과 경제활동에서 반칙을 쓰지 않는 ‘공정’ 패자의 재기를 돕고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를 갖춘 상태다.

성경 전반에는 이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하느님의 강렬한 의도가 드러나 있는데 성경적 의미의 정의란 하느님 나라의 질서다.

성공회 사제인 톰 라이트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느님의 인간 구원은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하느님의 새 창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세 가지 소명을 주시는 거라고 했다.

첫째가 경제정의 실현이고 둘째가 하느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다음이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것. 정의 구현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지만 많은 교회가 종교 행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레위기의 토지정의- 공평한 분배와 희년의 회복

땅이 인간 생활의 터전인 만큼, 토지정의가 경제정의의 토대다.

레위기 25장은 모든 이가 평등한 토지권과 인신권을 누리는 것을 거듭 말하고 있다.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매매는 가능하나 영원히 팔순 없다. 7년이 7년 지난 49년째 ‘희년’이 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땅을 회복할 수 있다 등등. *사람들이 늘어도 땅을 똑같이 나누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는 게 하느님의 의도로* 공평성을 위한 제비뽑기와 경계를 확실히 하는 지계석 설치 등으로 겹겹의 유지 장치도 마련했다. 토지 매매는 다음 희년 때까지의 사용권으로 매각이 아닌 임대. *성경 속 토지거래는 임대밖에 없었다.*

###현대적 정의를 위한 토지가치세제와 토지공공임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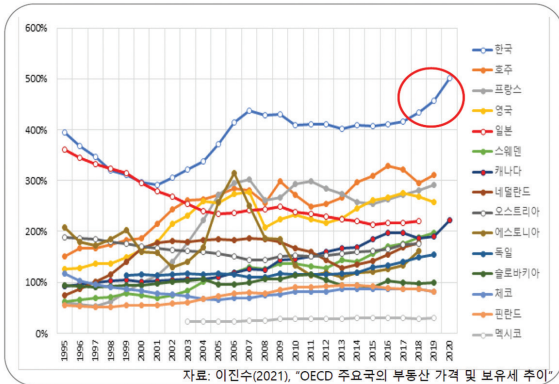
토지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주기적 불황이 오고 난개발과 환경 파괴로 이어지니 정의를 세울 방법을 써야 한다. 토지 가치를 공적으로 징수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식으로 분배할 수 있다. 세금으로 하는 ‘토지가치세제’와 정부가 땅을 사 민간에 임대하고 임대료로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토지

공공임대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모범적으로 발전 시키고 있는 싱가포르, 헬싱키 등이 하고 있다.

20여개국의 40년간 경제성장률을 비교한 결과 1960년대 농지개혁을 단행해 토지소유 분포가 평등했던 한국, 대만, 일본이 최고 성장을 누린 반면 몇 개 가문이 토지를 독식해 분포가 불평등했던 중남미 국가들의 성장률이 형편없었음을 알아야 한다.

부동산 불평등의 실상

GDP 대비 지가 배율



자료: 이진수(2021), "OECD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 및 보유세 추이"

세계 최고 땅값의 부동산 불평등 공화국

빠른 농지개혁으로 좋은 출발을 했던 한국은 그러나 현재 강남 아파트 한 채가 2~3년에 10억~15억씩 오르는 부동산 공화국이 됐다.

OECD 15개국 땅값이 GDP의 몇 배인가를 계산한 통계에 따르면 대다수가 3미만인데 반해 한국은 2019년 4.9, 2020년 5.0으로 압도적 1위였다. 땅값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토지소득 이득 역시 2011년 334조, 2018년 614조, 2020년 925조로 GDP의 48%에 육박할 정도다.

그런데 소유는 소수에 집중돼 있다. 1960년엔 0.3으로 균등했던 지니계수(토지분배 평등도)는 2020년엔 개인 0.81 법인 0.929로 극심한 불평등을 보여준다. 게다가 2019년부터 2년간 법인 1개가 무려 1만5천3백여 채의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사들였다. 법인을 가

장한 투기꾼들이 준동하고 있다.

부동산은 임금 다음으로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주거비가 상승하면서 가계 부채 누적액이 2천조를 넘었다. 기업들도 투자보다 지대추구에 몰두하니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자영업자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증폭되면서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LH사태나 대장동 사건이 터졌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어 장기적으론 국가사멸을 걱정할 지경이다.

세대간, 지역간 양극화도 심각하다. 60대 이상의 토지 소유 비중은 느는 반면 40·50대의 비중은 뚜렷이 줄었다. 또 3억으로 출발해 10년이 지나면 서울 사람은 20억 자산가가 됐고 지역민은 4억으로 가만히 있어서 가난해졌다. 2014년부터 6년간 수도권의 양도차익은 60~80%인데 반해 부울경은 2014년 13.4%에서 2019년 4.9%로 격차가 더 커졌다.

불로소득 차단 정책, 토지공개념 철학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누적된 상태에서 출범한 현 정부는 이에 강력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상황을 악화시켜 부동산 가격은 더 올랐고 풍선효과마저 심각해졌다.

불로소득을 차단할 종합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 토지 공개념의 정책 철학부터 수립하고 수도권 공급 확대론의 주술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으로 주택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 토지보유세의 공적 징수 강화와 양도소득세 정상화도 필요하고 LH사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지적 불로소득 대책도 세워야 한다. 또 장기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 위주로 공급정책을 펼쳐야 한다. 🌿

2022년 4월 11일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의 주제강의를 김아영 소피아 정평위원이 요약하였습니다.

외판곳

한상엽 프란치스코 신부 남양산성당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35.’ 줄곧 부산에서 살아온 내가 양산 주민이 되었다.

변잡한 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가하고 고요한 동네, 주위와 이루는 조화도 없이 이기적으로 솟아올라있는 건물의 갑갑함도 없고, 덕분에 탁 트인 시야는 하늘과 들판의 넉넉함으로 나를 이끈다. ‘디자인 공원’ 내에 위치한 성당은 공원의 일부가 되어있는 터로, 사제관 창문만 열면 찰랑한 폭포소리와 재잘되는 새소리, 초록의 내음들이 물밀듯 방 안으로 흘러들어오는데, 마치 자연이 내 품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느낌이랄까? 여기에 더해, 부산을 왔다 갔다 할 때면 여지없이 매번 타게 되는 고속도로까지, 이런 남양산은 나에게 물리적 차원을 넘어 영적인 의미의 ‘외판곳’이 되어주고 있다.

우리 각자는 항상 자기만의 외판곳을 필요로 하며, 이 필요는 우리 주님께로 귀속된다. 주님께서 ‘외판곳으로 따로 가서 좀 쉬어라’(마르 6,31)고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쉬어라’를 뜻하는 그리스어 ‘ἀναπαύω’는 직역하면 ‘확실히 또는 완전히 멈춰라’는 뜻인데, 곧 외판곳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완전히 멈춰서는 데 있다는 것이다.

확실히 외판곳은 나를 멈춰세우는 데 봉사한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거나 굳이 아무도 없는 깊은 밤이나 새벽을 택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신 자신을 ‘외판곳’에 혼자 둘 때, 당신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 당신께서 아버지 앞에 완전히 멈춰 설 수 있

었기 때문이 아니던가? 그래서 주님은 늘 ‘외판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신 것’이다.

겻세마니에서의 기도가 이를 잘 보여준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에서 기도는 끝났을 것이다.

겻세마니와 같은 주님의 외판곳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각자의 외판곳이 있어야 그곳으로 혼자 물러갈 것이고, 그럴 때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는(루카 22,45)’ 나를 멈추고 아버지 앞에 완전히 멈추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만의 외판곳은 존재하는가? 말 그대로의 쉼을 위한 외판곳만 찾고 있진 않는가? 이곳 남양산이 제대로 설 수 있는 나만의 외판곳이길 청해본다. 물론 이 또한 언젠가 떠나야 할 외판곳이지만. 🌿



정직한 사회를 그리며.

『정직한 후보』, 감독 장유정

전동묵 안드레아 신부 중앙성당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영화 이야기는 『정직한 후보』입니다. 영화 제목처럼 ‘정직한 후보’답게는 개뿔. 거짓말이 제일 쉬운 3선 국회의원 주상숙에게 제일 쉬운 것이 정치이지요. 그런 그녀가 4선을 바라보며 선거운동을 하는 중에 청천벽력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상숙이 정신 차리고 착하게 거짓말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제발!” 항상 거짓말을 일삼는 손녀를 위한 주상숙의 할머니 김옥희 여사의 간절한 기도(?)가 이뤄지고, 주상숙은 하루아침에 거짓말은 1도 할 수 없는 ‘진실의 주둥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4선 국회의원을 준비하는 그녀에게 있어 최고의 무기인 거짓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속에 있는 진실만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동안 숨겨왔던 비리들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에게도 속에 있던 말을 거침없이 내뱉게 되니 이젠 그녀가 가는 곳, 입을 여는 곳마다 화젯거리가 되고 맙니다. ‘국민사이다’라 불리던 그녀는 실상 가식과 거짓말이 일상이었음이 생방송과 선거운동 중에 드러나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살갑고 검소한 국회의원, 서민의 일꾼 주상숙은 실상 호화로운 주택에 거주하고 당 대표와 경쟁 후보와 거래를 주고받는 위선자였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상숙은 이 솔직함을 무기로 사용하여 오히려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정직한 후보 기호 1번 주상숙’으로 새로운 선거 공약을 그려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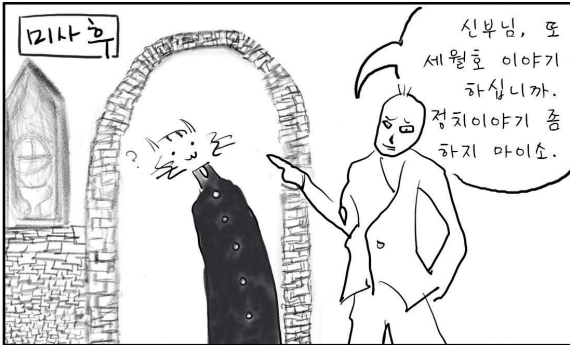
그러나 살아있는 할머니를 죽은 사람으로 위장해 세운 ‘옥희 재단’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분위기는 반등에 성공한

주상숙을 또 한 번 위기에 몰아넣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주상숙은 할머니 김옥희 여사의 죽음과 자신의 초심을 기억하는 보좌관 박희철의 진심어린 고백 앞에서 입만 정직한 후보

가 아닌 마음이 정직한 후보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그녀는 자신 뿐만 아니라 그와 연루된 모든 이들을 고발하는 동영상을 터뜨리며 교도소에 들어가죠. 2년 후, 출소한 그녀는 정치 입문 전 정의를 위해 싸웠던 그 옛날의 진실된 마음을 되찾아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목적달성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거짓말도 능히 해내는 정치 세계를 코믹하게 담아낸 이 영화를 통해, 정말 정직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보게 합니다. 사이다 같은 발언, 무자비한 팩트 폭력은 많은 이들의 의견을 대변해주기도 하지만 이를 과연 정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상숙이 초심 때와 같이 서민을 위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을 때라야 진정 정직한 후보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인이 참된 정직함의 의미를 잃지 않기를 청해봅니다. 🌿





참된 가르침 : 암브로시우스

김현 안셀모 신부 해양사목

서방의 4대 교부 중의 한 분인 암브로시우스(Ambrosius, 340-397)는 그의 나이 서른여섯에 로마 황제 다음으로 높은 관직이었던 밀라노의 집정관이 되었다. 세례도 받지 않았던 그는 교리적 이유로 분열되었던 교회의 치안유지를 위해 찾아간 성당에서, 한 어린아이의 추대로 갑작스럽게 주교로 거명되었다. 세속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교직을 맡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일이었다. 하지만 암브로시우스는 시민들과 교회의 안위와 일치를 위해 망설임 없이 세례받은 지 이레 만에 주교로 서품되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신학 지식도 사목 경험도 없었던 그가 주교로서 자신의 협력자인 성직자들을 지도해야 했던 막막한 심정을 그가 저술한 『성직자의 의무』(De officiis ministrorum) 첫 장에서부터 잘 엿볼 수 있다. 또한 암브로시우스는 자신의 협력자인 성직자들을 ‘자녀들’이라고 부름으로써 주교의 역할(영적 아버지)이 어떠해야 하는지 지혜롭게 알려준다. 어쩌면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눈여겨보아야 할 덕목이 아닌가 싶다.

제가 자녀들(성직자들)에게 가르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거만해 보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의 스승 다윗은... 가르쳐야 할 지혜의 교사요, 추구해야 할 행복의 길잡이는 하느님뿐임을 분명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서는 가르쳐야 하는 의무를 더는 회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법정과 관직에서 낙여와 사제직, 주교 직무를 맡게 되었는데, 저 자신이 배우지도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기도 전에 먼저 가르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먼저 배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배우면서 동시에 가르쳐야만 합니다. (『성직자의 의무』 1,1,1)




젊은이야, 일어나라(루카 7,14 참조)

우리나라 산업 재해 추방 운동은 1988년 한 청소년 노동자의 죽음(15세의 어린 노동자 문송면군이 공장에 취직한 지 두 달만에 수은중독으로 사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과로와 스트레스, 질병과 사고로 다치거나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기업이 '부리기 쉬운 노동력'에 집착하는 사이에, 교육계가 취업률과 지원금을 우선시하는 사이에, 청소년들은 하나둘씩 죽어 가고, 서서히 그들의 가정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노동 문제의 배경으로 그동안 인간 탐욕이 만든 고질적 폐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본에 유리한 법 적용, 노동의 도구화, 장시간-저임금 노동, 고압적인 관리·감독 체계, 강압적인 노동 문화, 어리다고 쉽게 무시하는 '나이 문화'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본과 노동의 희생물이 되고 맙니다.

한 젊은이의 장례 행렬(루카 7,11-17 참조)을 보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젊은이야, 일어나라.'는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시며, 그에게 생명과 꿈을 돌려주셨습니다. 불의한 노동 현장으로 내몰린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이 자신의 꿈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동 현장'(「백주년」, 43항 참조)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젊은이가 넘어질 때

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온 인류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젊은이가 일어나면 이는 마치 온 세상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도 사실입니다"(제36차 세계 젊은이의 날 담화)라고 하셨습니다. 청소년이 일어나야 세상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사회의 정의로움은 '노동자들 가운데 가장 작은 노동자인 청소년 노동자'(마태 25,40 참조)의 보호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청소년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그리하여 육체적, 정신적, 지적, 경험적 상황에 맞게 자기 자신을 완성할 수 있는 사회가 절실히 요구됩니다(『간추린 사회 교리』, 296항 참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교육계 및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노동 현실의 개선과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가 인간의 생명과 공동선을 위한 정책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주교

2022년 노동절 담화문(전문)



정의평화위원회 활동과 소식

+ 4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약칭: 아세미)

개나리와 벚꽃이 피는 4월이면, 수학여행을 떠나서 돌아오지 못한 세월호 아이들이 떠오릅니다. 그 아이들의 사진을 부여잡고 숨죽여 우는 부모님들의 얼굴도 겹칩니다. 세월호 8주기를 앞둔 4월 11일(월요일 19:30 가톨릭센터 소극장) 아세미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죽어간 이들, 제주4.3으로 국가권력에 목숨을 빼앗긴 사람들, 그리고 미안마 군사쿠데타로 죽어간 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그 가족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청하였습니다.



+ 세월호 8주기 부산지역 추모행사

성금요일이었던 4월 15일(금) 오전 11시, 세월호 8주기를 기억하며 부산시청 광장에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작년(2021년) 12월 부산시의회에서 '부산광역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집회나 문화제를 열 수 없었는데, 이날 저녁 7시, 서면에서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시민 문화제도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이 탄핵된 정권, 이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었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을 특별 조사기구의 자율에만 맡김으로써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지원과 안전 사회를 이루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아직도 세월호 참사는 진행중입니다.

+ 경동건설 고 정순규 미카엘 형제 항소심 기자회견

2019년 10월, 고 정순규 미카엘 형제가 경동건설이 시공하던 문현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망한지 3년째, 유족은 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오명과 진실규명을 위해 외롭고 처절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6일 1심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에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결국 2,781명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은 항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18일(월) 항소심이 열리는 날,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유족과 중대재해없는부산운동본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이 공동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 발족

4월 19일(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부산지역의 2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가 발족 기자회견을 가지고 중대재해 근절과 책임자 처벌, 사고조사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며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쟁을 선포하였습니다. 해마다 2,400명의 노동자가 출근하여 산재사망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부산에서만 10여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대시민 선전전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는 4월 19일부터 27일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권 쟁취 투쟁을 선포하는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제대로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 근절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4월 27일(수) 점심시간에 진행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소성리 평화미사



소성리 평화 미사

- ▶ 일시: 2022년 5월 30일(월) 14시
- ▶ 장소: 소성리회관 앞 천주교 상황실
- ▶ 출발: 사상기차역 앞 공터 9:50 까지 집결
수합차 이동 (10:00-18:30)
- ▶ 참가비: 1만원(현금식사)
- ▶ 사전신청: 정의평화위원회(051-465-9508)

한반도시대배치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2022년 5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왜 우리는 자연의 친구가 되어야 하나?

강사 : 박종복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낙동강하구지킴이시민행동 집행위원장

2022. 05. 09 / 월 / PM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문의 : 051-465-9508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3월 16일~4월 15일)

강영미 강운자 강인순 강정웅신부 강해용 고은영 권성일 권용대 권중희 김경란 김경숙 김광숙 김두리 김선영 김인
한신부 김종경 김진호신부 김홍기 나경문 류창훈신부 류형숙 맹정은 박위옥 박정학 박종민신부 박준철 법무법인
민심 법무법인부산 변지혜(2) 손석호 송석희 서경혜 신정금 심서경 심재영 아리 우무섭 유상우신부 유한이 윤영훈
윤용웅 이미영 이봉룡 이성애 이소라 이영복 이우형 이정기 이정미 이춘자 이형규신부 임정옥 장명화 장원창 전나
미 전동목신부 전운희 전태일 정종태 정성호신부 정호신부 조계환 조동기 조동성신부(2) 조영심 주님의축복을 지
선숙 차광준신부 최상국 최우인 최재경 최혁신부 최현욱신부 하민진 하희설 허채현 황수엽 황진

| 원고 후원 | 고은영 김진호신부 김현신부 박힘찬신부 최윤호신부

정의평화위원회를 후원(자동이체 신청)해주십시오.

정의평화위원회 후원계좌

- 농협 301-0465-9508-21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정평위)
- 부산은행 113-2000-863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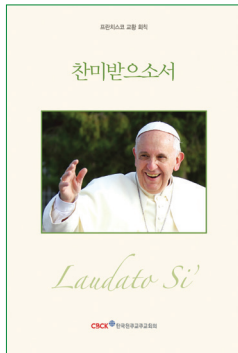
>> 보내주신 후원금은 정의평화위원회의 소중한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 후원인 가운데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된 분, 그리고 소식지(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이야기)를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은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십시오. ☎ 051-465-9508

「찬미받으소서」와 함께하는 생태영성

해야 달아, 주님을 찬미하라,
반짝이는 별들아, 너희 모두 찬미하라.

[시편 148,3]



- 일 시 2022. 5. 18 ~ 6. 1 (3주간 수요일) 오후 7시
- 장 소 가톨릭센터 3층 교육실
- 대 상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수 강 료 3만원 (수도자 50% 할인, 정의평화위원회 후원인은 무료)
부산은행 113-2000-8639-05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 입금 시 "이름+사회" 표기 (예: 홍길동사회)
- 신청 마감 5월 16일까지
- 신청하러 가기 <https://forms.gle/a5vECqLnJVMryv67A>
- 문의 051-465-9508, busanjustice@naver.com



날짜	강좌명	강사
5월 18일 (수)	바라봄의 영성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대구 가톨릭대학교)
5월 25일 (수)	친교의 영성	
6월 1일 (수)	살림의 영성	

※ 정의평화위원회는 교황청에서 설립한 기구로서 복음을 토대로 사회교리 교육과 실천에 힘씁니다.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전화 051-465-9508 주소 48968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71 가톨릭센터 5층
이메일 busanjustice@naver.com 홈페이지 busanjustice.pbcbs.co.kr